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제 1641 호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media.khu.ac.kr

대학주보

19일 선출제 논의 재개, 21일 이사회 소집

〈학교법인 경희학원〉

강석현 기자 nujabes99@khu.ac.kr

2차 결렬 이후 68일 만에 재개된 총장 선출제 단일화 논의
가장 큰 쟁점은 '범대위 합의안'에 대한 법인 측 수용 여부

합의 이뤄지면 총장 임기 만료(23일)부터 선임 절차 '시동'
선출제 협상 불발 시에는 총장 공석 사태 장기화 우려도

19일 구성원 대표단과 법인의 총장 선출제 단일화 논의(선출제 논의)가 재개된다. 이는 선출제 논의가 지난 9월 13일 2차 결렬 사태를 맞은지 68일 만이다.

총장선출 범경희대책위원회(범대위) 이성근(교수의회 의장) 위원은 지난 15일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구성원 의견 수렴 단계가 마무리됐다"라며 "이에 법인 공영일 이사장과 조여원 상임이사가 선출제 논의를 19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진행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19일 논의에서 '대학평의원회(대평의) 총장 선출안'을 수정한 '범대위 총장 선출 합의안'을 법인 측에 제안할 예정이다. 앞서 범대위는 지난 13일 구성원 의견 수렴 간담회에서 '대평의 총장 선출안' 중 총장추천위원회의 각 구성원 대표 위원 비율을 조정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관련기사 3면

범대위와 공영일 이사장을 비롯한 법인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이번 논의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구성원 투표를 주장하는 '범대위 총장 선출 합의안'에 대한 법인 측 수용 여부다.

만약 법인이 구성원 투표 방안을 수용한다면 오는 21일 열릴 법인 이사회에서 총장 직무대행을 선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기 총장 선출제까지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23일 조인원 총장의 임기가 만료됨과 동시에 총장 선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인 심의기획실 이 호 실장은 "현재 법인 이사진들은 이번 논의에서 합의를 이끌어내 선출제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며 "합의가 이뤄진다면 조인원 총장 임기 만료 이전에 차기 총장 선출제가 확정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하지만 법인이 지난 7월부터 구성원 투표 시행에 대한 거부감을 지속적으로 표했기 때문에 이번 19일 선출제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구성원 투표 시행을 두고 법인이 또다시 구성원과 이견을 보인다면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학 운영 전반이 크게 정체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교수는 "총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면 인사, 재정, 징계 등 학내 주요 정책들이 한동안 결정되지 못할 것이다"라며 "총장 직무대행이 선임되더라도 일상적 업무를 대신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번 논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난 8월부터 이미 두 차례나 선출제 논의 결렬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구성원 대표단과 법인이 또다시 파국으로 치닫게 될 공산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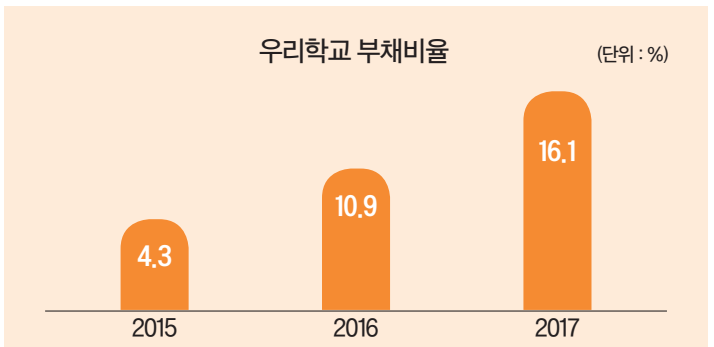
지난 8월 7일 구성원 대표단과 법인은 구성원 투표 방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1차 결렬 사태에 이르렀다. 이어 조인원 총장이 4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9월 4일부터 선출제 논의가 다시 진행됐지만 대평의에 소속되지 않은 일부 구성원들이 총장 선출 과정에서의 참여를 보장해달라며 기존 대평의 총장 선출안에 불만을 제기했다.

여기에 9월 13일 법인 공영일 이사장이 돌연 "완전한 구성원 의견 수렴 전까지 선출제 논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선출제 논의는 9일 만에 또 다시 결렬 사태를 맞았다.

이후 조인원 총장이 "구성원 의견 수렴에 대학이 직접 나서겠다"며 대화 테이블을 주도했지만, 이 과정에서 뚜렷한 성과없이 시간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각 구성원 대표단은 "대평의 총장 선출안을 기본으로 구성원 전체의 단일안을 마련하겠다"며 지난 7일 범대위 구성에 합의 후 13일 구성원 의견 수렴이 마무리됐다.

범대위 이성근 위원은 "만약 이번 논의에서 법인이 구성원 투표 방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투쟁에 임할 것이다"라며 "그 때부터는 범대위 또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 고사장은 어디?" 지난 17일과 18일에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가 양 캠퍼스 교내 및 외부 고사장에서 실시됐다. 입학처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9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은 총 44,652명이 지원해 57.9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강래완 기자 krw97@khu.ac.kr



출처: 2018 대학 알리미 사립대학 재정·회계지표

우리학교 부채비율 16.1%
재정예산처 "10년 내 상환 가능"

박혜림 기자 apricot12@khu.ac.kr

우리학교 부채비율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14일 발표된 2018년 대학알리미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2017년 결산 기준)에 따르면 우리학교 부채비율은 16.1%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사립대학 중 부채비율 상위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은 자기자본 보유 비중에 비해 타인자본이 상대적으로 높아 재무구조가 불안정함을 의미한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를 분석한 결과 우리학교 부채비율은 최근 2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5년 4.3%에 불과하던 부채비율은 2016년 10.9%, 2017년 16.1%로 증가했다. 2년 새 11.8%p가 증가한 꼴이다.

서울 소재 총 31개 사립대학 가운데선 3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9.3%로 부채비율이 가장 높게 집계된 케이씨대학교, 18.8%의 서울한영대학교에 이어 우리대학 순이었다. 증가 폭만 보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2년 사이 우리학교 상승폭은 11.8%p로 가장 급격히 증가했다. 광운대학교가 11.4%p, 세종대학교가 7%p로 뒤를 이었다.

우리학교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총 부채액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부채비율은 1년 이내에 지급되리라 기대되는 부채를 제외한 총부채를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으로 나눈 비율이다. 즉 총부채 액수와 기본금 액수가 부채비율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 우리학교 기본금 액수는 2015년 약 4천8백억 원, 2016년 약 5천억 원, 2017년 약 4천9백억 원으로 3년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총부채 액수는 2015년 약 1천7백억 원에서 2016년 약 2천억 원, 2017년 약 2천3백억 원으로 증가한 것이 부채비율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우리학교는 SPACE21 캠퍼스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하나은행으로부터 총 500억 원 상당의 기채를 발행했다. 우리학교 2017학년도 결산공고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하나은행으로부터 지난 2016년 총 360억 원, 지난 2017년에는 총 140억 모두 500억 원 상당의 기채를 발행했다. 기채는 2019년을 시작으로 2036년까지 17년간 매년 30~40억 원 가량을 상환해야한다.

교육부 사립대학 정책과 김재경 주무관은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그 상태가 오래 유지된다면 기본적인 회계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부채비율이 단순히 높아진다고 해서 재정 악화라고는 할 수 없다"며 "부채비율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불순한 의도로 쓰인 것만 아니라면 충분히 상환 가능하다"고 전했다.

재정예산처 박은규 과장은 "올해는 연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각 단과대의 노후 된 건물 개보수 작업을 하느라 부채비율이 높아졌다"며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과장은 "등록금이나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있다"며 "이를 이용하면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모두 상환이 가능하다"고 재정예산처의 기채 상환 계획을 전했다.

제51대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 확정…서울캠 3파전, 국제캠 경선, 총여 선거 또 다시 무산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2019학년도 학생회 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됐다. 제51대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 선거는 3개 선거운동본부(선본)가 후보로 등록했고,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 선거는 2개 선본의 경선으로 치러진다.

이번 서울캠 총학 선거에는 '경희대로', '더함', '메이커(Make_KHU)' 3개 선본이 출마한다. '경희대로' 선본 김수혁(자율전공학 2016) 정후보와 김영우(호텔경영학 2016) 부후보, '더함' 선본 김도엽(정치외교학 2016) 정후보와 최지선(아동가족학 2017) 부후보, '메이커' 선본 임선구(경영학 2014) 정후보와 박창민(정보디스플레이학 2017) 부후보가 출마한다. ▶관련기사 4면

국제캠 총학 선거는 '이룸' 선본과 'CLEAR' 선본의 경선으로 진행된다. '이룸' 선본 전완주(일본어학 2015) 정후보와 이지은(산업경영공학 2015) 부후보, 'CLEAR' 선본 전지웅(정보전자신소재공학) 정후보와 최승은(글로벌커뮤니케이션 2016) 부후보가 이번 국제캠 총학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2019학년도 양 캠퍼스 총여학생회(총여) 선거는 모두 후보자 미등록으로 무산됐다. 이로 인해 지난 1월 1일부터 이어졌던 총여 공백이 1년 이상 장기화될 전망이다. 지난 2018학년도 선거에도 역시 양 캠퍼스 총여 모두 후보자 미등록으로 선거가 무산된 바 있다.

동아리연합회 선거는 서울캠과 국제캠 모두 단선으로 치러진다. '네트워크(Networ;KHU)' 선본 유세인(국어국문학 2016) 정후보와 이동훈(지리학 2017) 부후보가 2019학년도 서울캠 총동아리연합회 선거에 출마한다. 2019학년도 국제캠 중앙동아리연합회 선거도 단선으로 '이룸' 선본의 박예림(국제학 2017) 정후보와 이수빈(체육학 2017) 부후보가 출마한다.

서울캠과 국제캠 학생회 선거가 각각 지난 13일, 16일 후보자 등록을 마침에 따라 2019학년도 양 캠퍼스 학생회 선거는 현재 선거운동 기간에 본격 돌입했다. 서울캠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9일간, 국제캠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7일간이 선거운동 기간으로 정해졌다. 이후 투표기간은 서울캠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국제캠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로 양 캠퍼스 모두 3일에 걸쳐 진행된다.

〈제51대 학생회 선거 후보자 명단〉

	서울캠퍼스 (정후보, 부후보)	국제캠퍼스 (정후보, 부후보)
총학생회	경희대로 (김수혁, 김영우)	이룸 (전완주, 이지은)
	더함 (김도엽, 최지선)	
	Make_KHU (임선구, 박창민)	CLEAR (전지웅, 최승은)
동아리연합회	Networ;KHU (유세인, 이동훈)	이룸 (박예림, 이수빈)
총여학생회	-	-